

# “선원 안거·봉사명령 등 자유형 징계 도입”

## 조계종 ‘징계제도 개선’ 세미나서 제기

승려 징계제도에 선원 안거, 봉사명령 등의 자유형 징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종지스님과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장 대원스님은 19일 열리는 ‘징계제도 및 징계사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자유형을 부분적으로 도입, 징계 효용성의 제고와 참회 기능을 확대해 승려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게 하여 중단에 복귀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형 징계의 부분적 도입을 주장했다. 종지스님은 발표문에서 참회형, 교육형, 봉사형 징계 등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종지스님은 자유형 징계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징계 후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징계사의 거주지 신고제와 시행을 제안하고, “현재 정보업무와 징계사 관리업무를 내구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징계사 거주지 신고제는 6개월(또는 1년) 단위로 수행장소(거주지)를 본사 또는 호법부에 서면 신고→호법부 확인, 관리→사면·복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징계사 관리 방안이다.

대원스님은 “현행 징계 관련 법령이 산재해 있고 징계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령간의 충돌, 입의 해석과 남용이 우려된다”며 단일 징계 관련 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원스님은 또 사면법을 제정해 사면 및 경감의 대상, 심사 기구,

절차와 방법, 통지 및 인사처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가 주최해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이밖에도 지광스님(중앙종회의원)이 ‘가톨릭 및 불교계 제 종단의 징계제도 비교 검토’, 장규원 교수(원광대 경찰행정학과)가 ‘사회내 처우를 통한 피징계자의 관리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세영스님(중앙종회의원) 성웅스님(초심회계위원) 지

관스님(송광유원 율감) 이은호 교수(경기도 교정학과)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주제발표 3편>

그동안 징계와 관련해 형평성, 징계 후 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가운데 열리는 세미나 역시 관심을 모은다. 종회 호법분과위원회는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관련 법 제·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김포학사 9월말까지 재시공”

### 승가대대책위, 품권건설에 요청

중앙승가대 김포학사가 9월말까지 부실 부분에 대한 재시공을 통해 준공된 뒤, 올해 내 입주될 전망이다.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는 10일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회의를 갖고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시공사인 품권건설에 9월말까지 재시공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는 9월말까지 도면과 상이한 부분과 부실 시공된 부분은 재시공한 뒤 준공받아 올해안에 입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물가연동에 따른 계약과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약 75여원의 감액 처리와 관련해 대책위는 입주 후 시공사와 협상키로 했다.

대책위원장 영담스님은 “근본적으로 부실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해

놓고 입주해야 한다”며 “반약 부실 시공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와 감리단에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의 부실부분은 현재 100가지가 파악된 상태며, 특히 문제가 심각한 지하층의 경우 건축법상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기시설이 없는데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 “해인사 보선 불인정”

### 조계종 중앙선관위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지명)는 11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69차 회의를 열고 해인사 중앙종회의원 보결선거 일정을 재중고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2교구 해인사 중앙종회의원(직선 1명) 보결선거 공고를 검토한 결과, 선출방법 및 후보자 자격요건 등 전체적으로 중앙종회의원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며 종회의원선거법 및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는 선거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정성운 기자

## 동국학원 자료 거부 논의

조계종 종합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국학원의 자료제출 및 보고 거부 등의 건 △동국대 운영현황 보고 △종합학교 소속 교역직 종무원(임직원, 교수)의 중환·중방 위반에 관한 건을 논의한다.

종합학교관리위는 동국대 운영현황 보고와 관련, 송석구 총장의 출석을 14일 요청했다. 정성운 기자



◇60% 공정을 보이고 있는 공굴사 선무도 대학원 대학 본관 상량식이 8월14일 개최된다.

## 선무도 대학원대학 2002년 문 연다

### 경주 골굴사, 14일 대학본관 상량

불교의 대표미술인 선무도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선무도 대학원 대학이 설립된다.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 선무도 대학원 대학 설립추진위는 8월 14일 오전 10시 대학 본관 건물 상량식을 개최한다.

200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선무도 대학원 대학은 ‘원효대사의 화쟁사상과 대승 불교관 확립’을 건학이념으로 선무도학과와 전기공학과 등 2개학과를 개설, 매년 40명의 선무도 전문석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선무도 대학원 대학 설립추진위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3층(300평)규모의 본관건물과 150평을 수용할 수 있는 3층 3백평규모의 기숙사가 완공되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학교법인 설립 및 교육부 공식 인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무도대학원 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적운스님은 “불교의 대표미술인 선무도의 발견을 검토한 결과, 선출방법 및 후보자 자격요건 등 전체적으로 중앙종회의원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며 종회의원선거법 및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는 선거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받아 매년 40명의 선무도 전문 석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선무도 대학원 대학이 들어설 골굴사는 16년전 적운스님이 포교의 방편으로 참선에 관련된 선무도 실천수행법을 일반에 공개한 후 4년전부터 특별한 기획프로그램 없는 상태에서 선무도 수련생들이 365일 몰려들면서 현재까지 6만여 명의 수련생을 배출했다.

선무도대학원 대학원 대학 설립추진위는 부설 사회교육원도 설립해 매년 골굴사 선무도 수련에 참여하는 1만5천명을 불교교리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수련교육 한다는 방침이어서 불교포교에도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선무도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는 먼저 올해 말 1차로 조계종단에 불교교양대학 설립인가를 득한 후 대학원 대학 개교에 앞서 2001년에는 불교학, 원효사상, 체육학, 기초한의학, 의국어, 전통문화, 기공실기, 선무도 인문과 실기등의 과목을 개설해 지금까지 선무도 수련을 이수한 사법들을 1년간 재교육 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gobaou@buddhapia.com)

## 지리산담 반대 100만인 서명

### 20일부터...8월11일 150개 단체 ‘지리산문화제’

지리산담 백지화 운동이 날로 힘을 얻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지리산합암백지화대책위, 산청덕천강담백지화대책위는 공동으로 8월11일 오후 6시 경 남 함양읍 상림공원에서 ‘지리산 살리기·담 백지화를 위한 지리산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날 문화제는 식전 사물놀이, 지리산 예찬시 낭독, 대금 공연, 이애주 교수 춤 공연, 대통령제 보내는 편지 낭독, 극악 한마당(조소현), 단막 풍토(전유성), 연애인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한편 ‘지리산담 백지화 국민행동’(가칭)은 14~15일 실상사에서 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조직 구성 및 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치주상보> ‘국민행동’에는 ‘지리산 살리기 담 백지화 범불교연대’ 산하 50개 단체,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산하 31개, 시민단체협의회 산하 69개 단체 등

모두 15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또 ‘지리산 담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는 대국민 호소문을 작성, 20일부터 ‘국민행동’과 연대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일은행 본점에 지리산 사진 전시회와 상설 서명대를 운영 하고 전국 사찰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 “가야산 순환도로 중지”

### 조계종등 재정신청

조계종총무원과 지리산 살리기·담 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는 10일 가야산 순환도로(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 건설중지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냈다. 재정신청서에서 총무원 등은 “도로 개설로 인해 가야산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건설 계획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 범국민-종교기구로 확대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위원회’는 12일 서울 생명나눔선교회 회의실에서 대표단 회의를 열어 오는 11월로 잠정 예정된 달라이 라마 방한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범종교·국민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한준비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조계종 총무원에 보고하고 조직과 인원 동원 그리고 예산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 ‘신도교육 방향’ 공청회 연다

### 20일, 조계종 불교회관

신도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20일 오후 2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신도교육의 현실과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조계종포교원과 종회포교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신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신도교육의 방향’, ‘신도교육제도 방안에 대하여’ 등의 주제로 박경준(동국대)교수, 지현(포교분과위원장), 상훈(포교국장)스님이 발표한다.

또 종회(종회의원 지광스님), 불교대학(법장법교대학장 법장스님), 학계(동국대 김성철교수), 신도교육준비위(박영동 교법사), 교육원(교육부장 계성), 사찰주지(정법사 지태스님), 미등록 불교대학(화엄불교대학 보각스님), 본사포교국장(법어사 지종스님)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각계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 조계종 환경소위 구성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예산과 조직 구성, 인력 보강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환경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종회 사회분과위원회 연연스님과 사회부장 양산스님, 기획실장 일철스님, 종회의원 법안 종림 현웅스님 등은 13일 환경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현웅스님, 법안스님,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정형근 사회과장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모임에서 환경특별분담금의 신설, 상근실무간사 임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민영교도소

종교계가 관심을...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 佛子世界

절망대고 대륙의 중앙으로...

**Tibet**  
금단의 大地 티베트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베트고원... 스스로 보고 땅임을 지켜야 하는 티베트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라야! 시간을 넘나드는 티베트인들의 순례를 시작하십시오.

- 일 정: 서울 - 네팔, 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베트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국제선항공료(아시아항공+네팔항공: 1년 항공권) 중국 및 티베트여행허가서, 카트만두 1박
- 출발일: 매주 화, 목, 토 개별출발

**JEEP 타고 티베트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카트만두-라사-장제-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항공료, 숙박(조식포함), Jeep(인탑승), 중국비자, 티베트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 영어가이드, 보험
- 출발일: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연합상품으로 Jeep 이용조건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여사에서 선보이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반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 및 8대성지 순례.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항공+네팔항공: 1년 항공권)

- 일 정: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 왕사성, 죽림정사)-파르나-바이살리(대림정사, 아쇼카 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 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위성, 기원정사)-롬비나-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1년 항공권, 숙소(조식포함), 한국안내인, 전용차량
- 출발일: 15명 이상 수시 출발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